이란전쟁과 통화정책, 반도체 실적과 공급

BNK투자증권

BNK리서치센터 | **김성노** | 매크로/전략 | ksn0909@bnkfn.co.kr | (02)3215-7568

甲論乙駁
2026/3/23
FOMC

이란전쟁과 통화정책, 반도체 실적과 공급 증가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전망. 반도체 공급 증가는 변수

FOMC, ECB가 물가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연말 PCE 상승폭이 0.3%p로 제한됐으나, 유로존은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0.7%p나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상승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으나, 유로존은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가 높아지면서 금리인하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금리선물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일제히 금리인상에 나설 것을 반영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란전쟁이 당장에 금리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2월부터 미국 주가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도 축소되기 시작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영향으로 주가와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상승이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두바이유가는 2월 평균대비 100%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 과거 USD100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KOSPI는 조정국면이 지속됐다. 2월까지 반도체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출물가지수 상승이 기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수출입물가지수 상승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향후 기업실적에 부정적이다(1Q26에는 재고평가이익이 발생).

지난주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Capex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연초 AI Capex 증가가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이번에는 반도체 3사의 Capex도 동반 상향 중이다. 상반기까지는 AI Capex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나,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Capex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Capex는 120%YoY 이상 급등한 반도체 가격이(Q성장이 없는 가운데 P만 상승한 특이사례) 포함된 반면에 반도체 Capex 증가는 공급증가로(Volume)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Q26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수다.

Ⅰ. 이란전쟁과 통화정책, 반도체 실적과 공급 증가

이란전쟁을 계기로 매파적으로 변한 통화정책

3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다. 다만 경제지표 전망에 있어서는 PCE 전망치가 0.3%p 상향 조정되면서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2.4%YoY로 소폭 상향됐으나, 4Q25 경제성장률 부진을 고려하면 우리는 2.3%YoY 수준으로 예상한다. 연말 core PCE가 2.7%YoY로 상향 조정됐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2.6%YoY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상향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경제전망 수정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1: 3월 FOMC 경제전망: 물가 상향이 뚜렷하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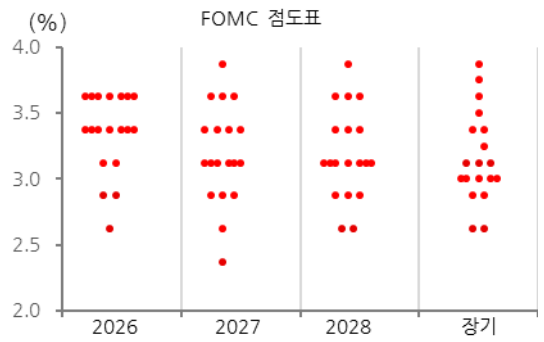
변수(단위)	중간값				집중분포도				분포범위			
	2026	2027	2028	장기	2026	2027	2028	장기	2026	2027	2028	장기
실질GDP 변화율(%YoY)	2.4	2.3	2.1	2.0	2.2-2.5	2.0-2.4	2.0-2.3	1.8-2.0	2.1-2.7	2.0-2.7	1.8-2.7	1.7-2.5
12월 관측치(%YoY)	2.3	2.0	1.9	1.8	2.1-2.5	1.9-2.3	1.8-2.1	1.8-2.0	2.0-2.6	1.8-2.6	1.7-2.6	1.7-2.5
실업률(%)	4.4	4.3	4.2	4.2	4.3-4.5	4.2-4.4	4.0-4.4	4.0-4.3	4.3-4.6	4.0-4.5	4.0-4.5	3.8-4.5
12월 관측치(%)	4.4	4.2	4.2	4.2	4.3-4.4	4.2-4.3	4.0-4.3	4.0-4.3	4.2-4.6	4.0-4.5	4.0-4.5	3.8-4.5
PCE 인플레이션(%YoY)	2.7	2.2	2.0	2.0	2.6-3.1	2.0-2.3	2.0	2.0	2.3-3.3	1.8-2.4	1.9-2.2	2.0
12월 관측치(%YoY)	2.4	2.1	2.0	2.0	2.3-2.5	2.0-2.2	2.0	2.0	2.2-2.7	2.0-2.3	2.0	2.0
Core PCE 인플레이션(%YoY)	2.7	2.2	2.0	n/a	2.5-2.8	2.0-2.4	2.0	n/a	2.2-3.0	2.0-2.5	2.0-2.2	n/a
12월 관측치(%YoY)	2.5	2.1	2.0	n/a	2.4-2.6	2.0-2.2	2.0	n/a	2.2-2.7	2.0-2.5	2.0	n/a
FED금리(%)	3.4	3.1	3.1	3.1	3.1-3.6	2.9-3.6	2.9-3.6	2.9-3.5	2.6-3.6	2.4-3.9	2.6-3.9	2.6-3.9
12월 관측치(%)	3.4	3.1	3.1	3.0	2.9-3.6	2.9-3.6	2.8-3.6	2.8-3.5	2.1-3.9	2.4-3.9	2.6-3.9	2.6-3.9

자료: FOMC, BNK투자증권

FOMC에서 연말 FED금리는 3.4%로 12월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3월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금리 동결과 25bp 금리인하가 각각 7표를 차지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연내 금리 동결과 한차례 금리인하가 대세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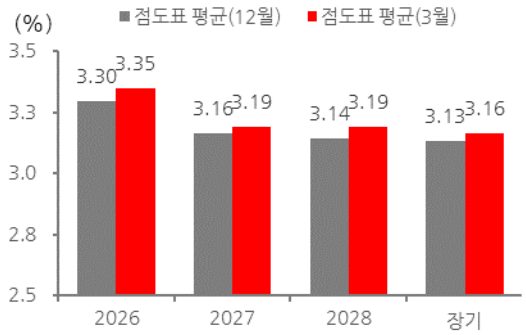
점도표 평균값은 12월 3.30%에서 3월에는 3.35%로 5bp 정도 상향 조정됐다. 이는 연말 FED 금리가 3.25~3.50%에서(중간 3.375%)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금리선물을 기준으로(그림6) 보면 금리인하 시기도 2027년으로 뚜렷하게 늦어진 상황이다. 관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향후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Fig. 2: 2026년 금리는 동결 또는 25bp 인하



자료: FRB,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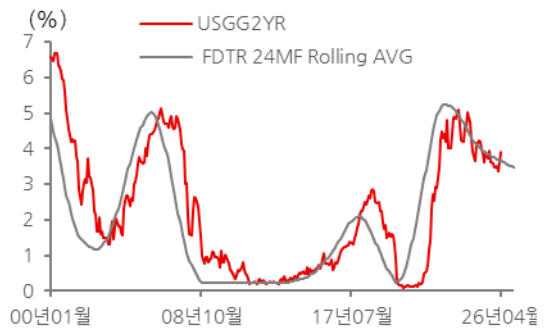
Fig. 3: 점도표 평균값은 5bp 상승



자료: FRB,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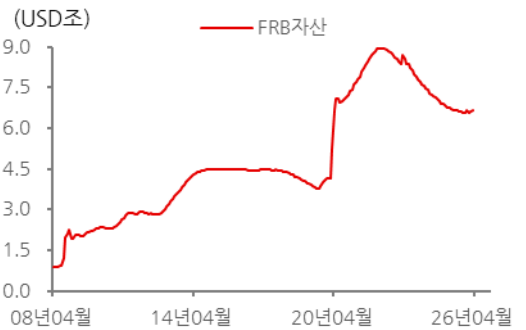
FOMC 이후 매파적 분위기로 인해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했는데, 2년 국채수익률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은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향후 24개월 FED 금리수준을 고려했을 때 2년 국채수익률은 23bp가 높은데, 이는 연내 금리인하가 없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4: 2년 국채수익률은 연내 금리동결을 반영



자료: FRB,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 5: 단기 국채 중심의 자산매입은 소극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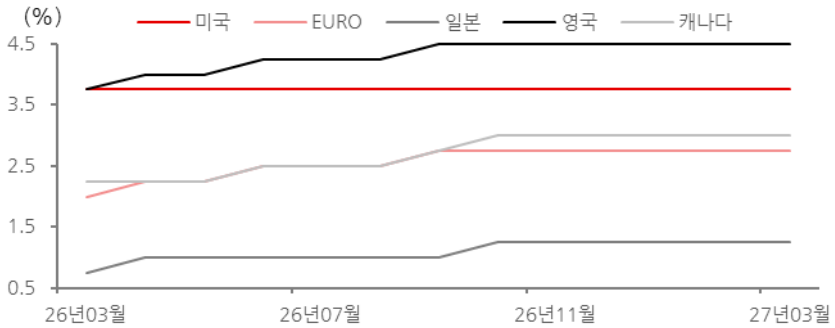


자료: FRB,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단기 국채매입과 MBS 매각이 병행

2025년 12월부터 FRB 자산이 소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6년 3월 현재 FRB자산은 USD6.66조로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4개월간 USD1,035억 증가한 것이다. 국채가 USD1,674억 증가한 반면에 MBS는 USD433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채매입은 대부분 1년 이하의 T-Bill로(USD1,700억 증가) 구성돼 있는데, 과거 10년 국채를 중심으로 한 장기물 중심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는 차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란전쟁이 발발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유로존, 영국, 캐나다 등이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내에 각각 25bp 이상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core CPI가 예상외로 2.5%YoY로 상승하면서 금리인상 시점이 4월로 앞당겨지고, 연내 2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Fig. 6: 이란전쟁을 계기로 금리선물은 금리인상 우려를 반영 중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금리인상 또는 인하 가능성이 50%를 넘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금리변경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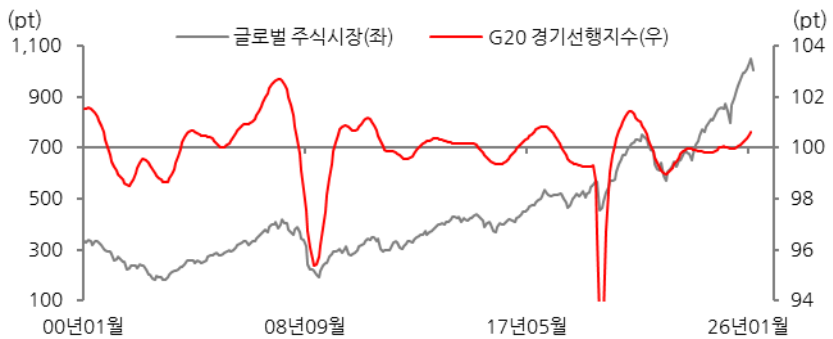
ECB는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YoY로(기존 1.9%YoY)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0.9%YoY로(기존 1.2%YoY)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대폭적으로 수정된 것인데, 이는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가 기존 전망보다 0.7%p 상향되면서 금리선물은 2026년 75bp 금리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는 않으나, 장기화될 경우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금리인하보다 금리인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유가는 부정적인 소식

2024년 하반기부터 유로존,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금융지표가 개선된 점이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물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주가, 장단기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등 금융지표들이 일제히 개선됐고, 이로 인해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란전쟁을 계기로 주요국들의 물가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4년부터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 상태다. 2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도 축소되면서 경기선행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변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Fig. 7: 금융지표 개선이 약화된 점은 OECD 경기선행지수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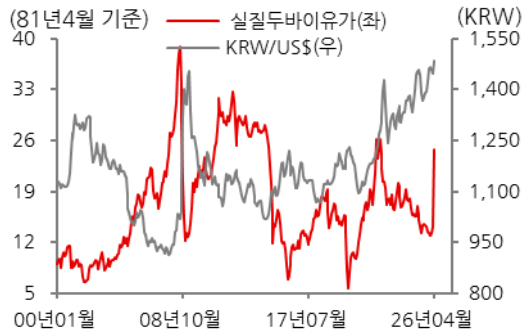


자료: OECD, Bloomberg, BNK투자증권

198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두바이 유가를 소비자물가로 나눈 실질 두바이유가가 상승하고, 원/달러환율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유가상승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선호현상이 달러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원화약세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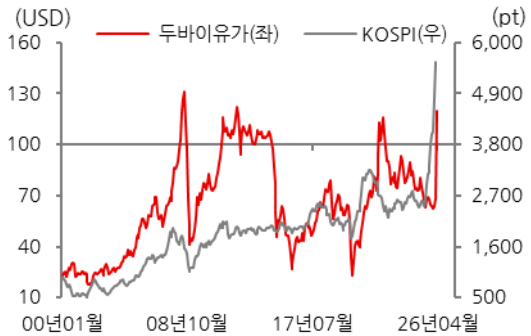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두바이유가는(3월 평균을 USD120으로 가정한 경우)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시설 파괴로 인해 두바이유가가 USD137까지 상승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실질유가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8: 실질 두바이유가와 원/달러환율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월평균 유가, 환율 기준, 두바이 USD120으로 추정

Fig. 9: 유가 USD100은 주가에 부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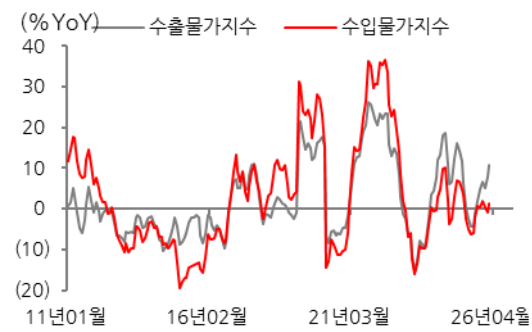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월평균 유가, KOSPI 기준

소비자물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두바이유가가 USD10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한국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바이유가가 USD100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KOSPI가 상승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가상승이 무역수지, 원/달러환율, 채권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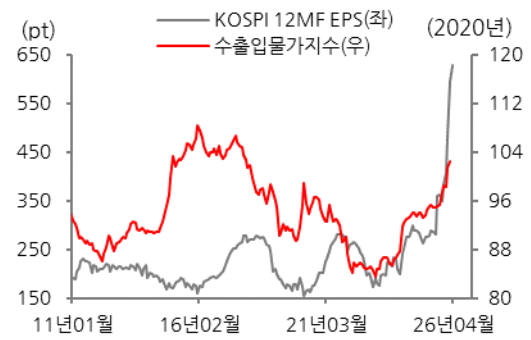
2026년 2월까지 DRAM 가격상승이 진행되는 반면에 원유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출입물가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3월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수출물가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물가지수 상승세가 주춤해지거나 하락반전할 경우 기업실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Fig. 10: 2월까지 수출물가상승으로 교역조건 개선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Fig. 11: 3월부터 수입물가지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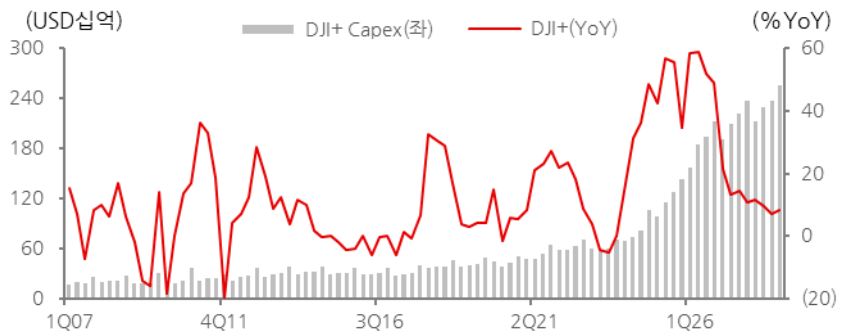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1: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주2: 2015~16년 수출입물가지수 상승은 유가 급락 때문

반도체 Capex, 수요에 이어 공급도 증가

지난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2Q26 실적을 발표했고, 3Q26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2026년 회계연도(8월 결산법인) Capex를 USD233억에서 USD250억으로, 2027년 회계연도 Capex를 USD35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실적호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약세로 마감했다.

연초 아마존, 구글을 중심으로 AI 투자가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DJI+(DJI 30종목에 구글, 메타를 포함) 설비투자가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DJI+ Capex는 2025년 46.3%YoY에서 2026년 54.1%YoY로 오히려 높아졌으며, 2027년에는 14.7%YoY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DJI+ Capex 증가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Big4가 주도하고 있다. Big4 Capex는 2025년 64.5%YoY에서 2026년에는 69.5%YoY로 높아질 전망이다(2027년에는 17.4%YoY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

Fig. 12: 미국 DJI+ Capex 2026년 54.1%YoY, 2027년 14.7%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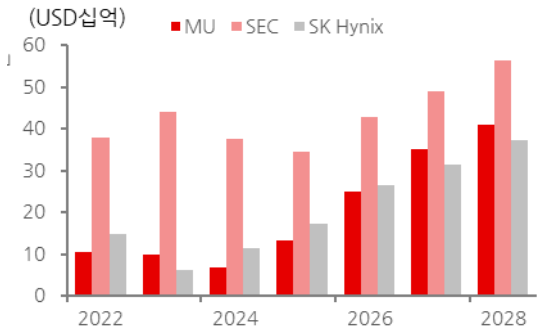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DJI30에 구글, 메타 포함한 자본지출 합계

Big4를 중심으로 AI Capex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3사의 Capex도 동반 상향 조정 중이다. 전술한대로 마이크론 설비투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6년 회계연도에 설비투자가 87.7%YoY 증가하고, 2027년 회계연도에도 40.0%YoY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6년에는 전체 110조원으로(R&D 포함)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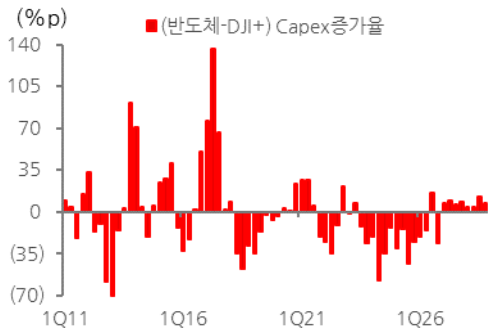
마이크론의 계획대로라면 2027년 회계연도 설비투자가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데, 최근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고려하면 SK하이닉스도 2026년 Capex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으로 보면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의 Capex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Fig. 13: 2026년 반도체3사 Capex는 40.9%YoY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주: 2027년 Capex는 22.6%YoY

Fig. 14: 상반기까지는 수요 우위, 하반기부터는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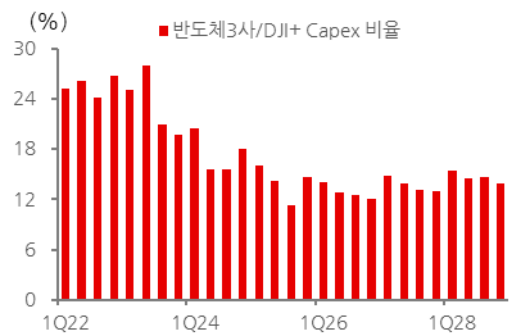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회계연도가 다른 마이크론을 고려해 분기 단위로 조정할 경우 반도체 3사 Capex는 2025년 17.4%YoY에 그쳤으나, 2026년에는 40.9%YoY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2027년에는 22.6%YoY). 그림 12, 13을 고려해 분기별로 반도체 3사와 DJI+ Capex 증가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14다. 그림14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DJI+ Capex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3사의 Capex 증가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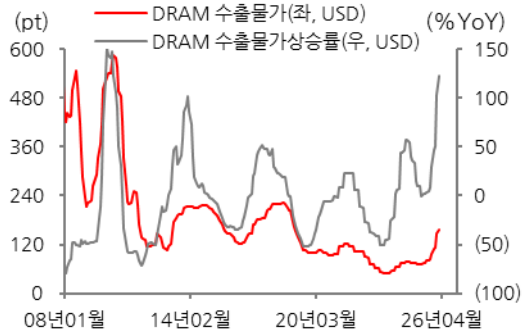
그림15는 DJI Capex 금액으로 반도체 3사의 Capex 금액을 나눈 것이다. 반도체/DJI+ 비율이 높아질수록 반도체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낮아질수록 DJI+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2022년 반도체/DJI+ Capex 비율이 25.6%에 달한 상황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반도체산업은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Fig. 15: Capex 금액에서는 수요 우위 국면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 16: DRAM 가격상승으로 수요금액이 커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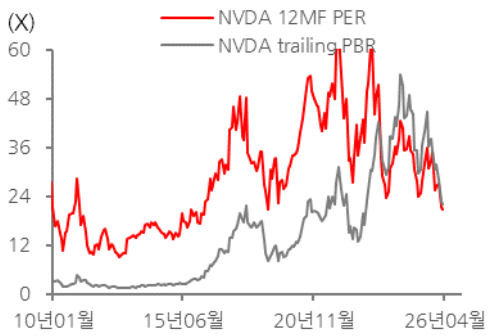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NK투자증권

반면에 2025년에는 반도체/DJI+ Capex 비율이 14.1%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가격급등으로 이어졌다(3Q25 11.3%로 급락한 이후 반도체 shortage로 가격 급등이 시작). 2026년 반도체/DJI+ Capex 비율은 12.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 2027년에는 13.7%로 높아질 전망이다(2028년 14.6%). 이런 사실은 향후에도 반도체 Capex보다 AI Capex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연초에 아마존, 구글을 중심으로 한 AI Capex가 급증한 이유가 반도체 가격상승에 따른 비자발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반도체 Capex는 양의(Volume, Q)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에 AI Capex는 가격상승에(Q보다는 P, Cost)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월 달러기준 DRAM 수출물가지수는 6.9%MoM, 122.9%YoY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DRAM 가격 급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비용이 급증하면서 AI Capex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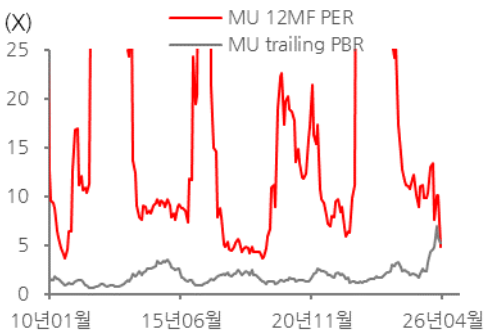
반도체 3사의 Capex 증가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면 반대로 1Q26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태다. 왜냐하면 2월 현재 원화기준으로 DRAM 가격이 6.4%MoM, 123.5%YoY 상승했고, 플래시메모리 가격은 6.3%MoM, 139.1%YoY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Q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7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Q2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은 14.1조원에 머물렀으며, 연간으로도 90.8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실적개선이다.

Fig. 17: 엔비디아 PER 20.9x, PBR 22.2x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Fig. 18: 마이크론 PER 4.9x, PBR 5.2x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1Q26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12MF PER이 trailing PBR보다 더 낮아졌다는 점에서 multiple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6년 한국 반도체 PER은 6.5x 수준으로 마이크론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Fig. 19: KOSPI200 업종별 valuation

업종	시가총액 (조원)	PER			PBR			ROE	
		2025	2026	2027	2025	2026	2027	2026	2027
전기가스	46	4.4	3.8	3.6	0.72	0.62	0.54	17.6	16.2
반도체	1,928	23.8	6.5	5.7	3.61	2.35	1.67	43.9	34.2
섬유의복	8	8.0	6.7	6.2	1.05	0.94	0.83	14.8	14.2
지주회사	258	14.0	7.7	6.8	1.45	1.30	1.15	17.8	18.1
은행	194	8.6	8.1	7.7	0.76	0.72	0.69	9.2	9.2
자동차	229	9.4	8.5	7.8	0.91	0.84	0.78	10.3	10.4
통신	39	15.2	11.3	10.5	1.04	1.00	0.96	9.0	9.3
증권	94	14.1	11.5	12.1	1.88	1.65	1.50	15.2	13.0
운송	52	10.8	11.7	10.6	0.91	0.86	0.81	7.5	7.9
서비스	19	14.6	11.8	10.3	1.36	1.26	1.16	11.1	11.8
보험	94	12.3	12.2	11.4	1.15	0.80	0.80	7.7	7.0
음식료	40	14.3	12.4	10.9	1.20	1.15	1.07	9.5	10.1
유통	29	17.0	13.1	11.3	0.62	0.60	0.58	4.7	5.2
전기전자	86	18.2	15.7	13.3	1.50	1.39	1.28	9.2	10.0
건설	46	15.9	16.6	14.6	1.28	1.23	1.15	7.6	8.2
조선	165	27.7	17.8	14.3	4.91	3.96	3.23	24.7	24.8
인터넷게임엔터	93	21.2	17.9	15.6	1.57	1.46	1.34	8.4	8.9
금속	69	33.6	18.6	15.8	0.80	0.76	0.73	4.2	4.7
정유	38	na	20.5	12.6	0.79	0.77	0.73	3.8	6.0
화장품	28	37.9	25.6	20.3	2.31	2.18	2.01	8.7	10.3
방산	146	48.1	33.4	25.3	7.65	6.46	5.25	21.0	22.9
제약바이오	157	47.4	36.5	30.4	3.86	3.74	3.35	10.4	11.6
전력기기	97	58.1	38.7	29.5	11.50	9.06	7.20	26.2	27.2
기계	91	96.4	70.4	51.8	5.02	4.81	4.45	7.0	8.9
화학	49	na	102.0	14.5	0.66	0.68	0.65	0.7	4.6
2차전지	158	na	974.3	44.1	3.01	2.99	2.79	0.3	6.5
코스피200	4,356	20.2	9.2	8.0	1.98	1.65	1.40	19.6	18.9

자료: Quantiwise, BNK투자증권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으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여의도동) BNK금융타워 6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10-6900 / **F** 052-271-6111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벤처투자 BNK 썸농구단